Market Conditions

『Monthly』

APRIL 2017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최 성 수 대리 / 010-3144-2110

K2 LOGICS

Contents

01. 해운
02. 항공
03. 경제
04. 무역
05. 화학
06.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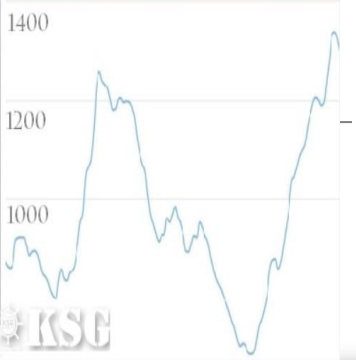
구 분		시 황	각종 지수 (시황 상세)
해 운	중 국	◆ **한중항로/ 2월까지 물동량 두자릿수 성장**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 / 운임 회복 전략의 동력 약화 -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화물의 호조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급격한 수요 부진의 배경 - 통관과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중 구간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활동위축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 국제유가 현황 (단위 : $/ 배럴) 시장지표 유가 WTI 04.03. 50.24 ▼ 0.36(-0.71%) 두바이유 04.03. 51.35 ▼ 0.49(-0.95%) 브렌트유 04.03. 53.12 ▼ 0.41(-0.77%) <출처 : 뉴욕상업거래소(NYMEX) - WTI, 두바이 런던국제거래소(ICE) - 브렌트>
	중남미 & 북미	◆ **중남미항로/ 남미서안, 트럼프 효과에 CKD물량 급감** - 춘절 이후 비수기 돌입 / 멕시코향 수요회복 난항 - 멕시코향 자동차 반조립제품(CKD)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 - 트럼프 이슈가 불거지면서 멕시코를 불안한 시장으로 인식 - 동안은 대체로 90~100%의 소석률을 거둔 반면 서안은 70~80% 중반대를 기록 <출처 : KSG> ★ **북미항로/ SC 앞두고, 운임인상 안간힘** - 4월1일 FEU당 800달러 GRI - 한국발 물동량↑서안북부와 서안남부 소석률 90~100%↑ - 선박 기항이 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운임인상을 꾀할 수 있을 것 - 오는 4월부터는 한진해운 미주 서비스를 인수한 SM상선이 서비스를 시작 - 기항지 : 닝보-상하이-부산신항-롱비치-부산북항-부산신항-닝보 <출처 : KOTRA>	멕시코 베라크루스항 자동차선 기항 선사 ← 멕시코 向 자동차선 기항선사
	구 주	◆ **구주항로/ 얼라이언스 재편에 정시율 하락 예고** **- 3월 중순 TEU당 200~300달러 운임인상** - 최근 동서항로에는 현대상선과 2M얼라이언스의 전략적 협력이 공식 출범 - 아시아-북유럽항로 신규 서비스인 AE7(MSC 콘도르)를 4월1일부터 시작 <출처 : 한국해운신문>	건화물선 운임 지수 최근 6개월간 BDI 추이
	중 동	◆ **중동항로/ 임시휴항으로 '운임정상화' 돌파구 마련** - 이란행 밀어내기 특수로 소석률 ↑ → 이란의 신년 명절인 노루즈에 발맞춰 이란행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증가 - 카타르석유공사 : 부유식재기화시설 건설 계획 파키스탄 내 사업확장을 목표로 선착장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완료할 계획 <출처 : 카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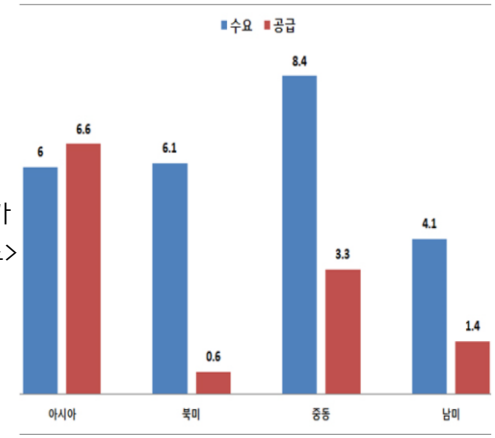
멕시코 베라크루스항 자동차선 기항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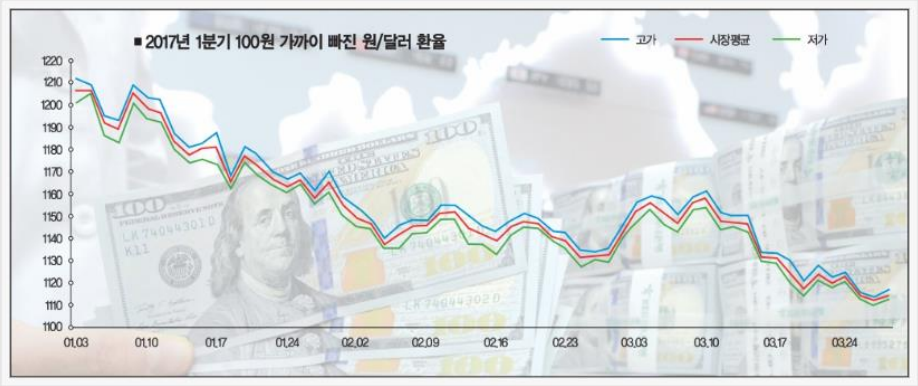
기항선사	항로	소요기간	기항빈도
케이라인	북미동안&멕시코-남미동안	57일	주 1항차
	유럽	68일	주 1항차
CSAV	남미동안-카리브해-멕시코만(A루프)	30일	40일 1항차
	남미동안-카리브해-멕시코만(B루프)	30일	40일 1항차
	남미동안-남미서안-멕시코만-지중해-북미동안-미국만	90일	월 1항차
MOL	남미동안-멕시코-북미동안-멕시코-남미동안(북)	각 50일	주 1항차
	남미동안-멕시코-북미동안-멕시코-남미동안(남)		
	CES4	90일	월 1항차
알레니우스 월헬름센	북미-남미	30일	주 1항차
	남미서안	30일	주 1항차
	중동	45일	2주 1항차
호그오토라이너스	북미-멕시코-유럽	58일	2주 1항차
NYK	북미-남미	45일	15일 1항차
SC라인	직항서비스	15일	15일1항차

2015년2월27일 기준 자료 : 베라크루스항만청

날짜	BDI	BCI	BPI	BSI
3. 31	1297	2597	1374	881
3. 30	1324	2690	1366	882
3. 29	1338	2755	1346	885
3. 28	1333	2765	1306	893
3. 27	1282	2620	1253	895
3. 24	1240	2482	1218	896



구 분		시 황	특이사항
항 공	동 향	**항공화물 상승세 1월도 "계속"** ◆ **신제품 출시 이어져…이른 설 연휴도 '한몫'** - 신규 전자제품 출시 등 항공수요 증가세 탄력 - 아시아 지역 화물 수요 6%증가 / 화물 공급은 6.6% 증가 - 유럽 8.7% / 중동 8.4% / 남미 4.1% / 아프리카 24.3의 수요증가 <출처:카고뉴스>  ◆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강화, 국적 대형 항공사 '위기일발'** **- 항공사 재무안정성 높이고 정부 신규 항공사 설립 제한해야** - 중동,중국 항공사. 정부에서 전폭적 육성 - 국내 항공사 구조조정,정부지원 없이는 도태 <출처:항공뉴스>	
	I S S U E	◆ **대한항공, 중국 푸동 경유 모든 화물 HS Code 제출 의무화..중국 세관 규정으로** - 중국세관이 PVG 도착 후 Transit 되는 화물에 대해 HS Code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 * AWB 접수 시 유의 사항 Master Single건은 Handling Information란에 HS Code 기재 Consol 건은 첨부 양식(HS Code list)작성하여 MAWB에 첨부 <출처 : 카고뉴스> ◆ **중국 신규 화물 전용항공사 Longhao Airlines 본격 상업 서비스 개시** ▪ 광조우에 본사를 둔 화물항공사의 첫 상업적 서비스 운항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으며, 심천의 SF Express를 대신해 화물을 운송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 - 동 항공사는 매년 5대 이사의 화물기를 도입해 오는 2025년까지 총 50대가 넘는 화물기를 운항한다는 계획 <출처 : 카고프레스>	

구 분	내 용
산 업 & 경 제	◆ **올해 2분기 수출, 회복세 뚜렷해질 듯** - 2017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 망 지수 106, 5분기만에 100상회 - 수출기업들은 대부분의 수출 항목에서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 -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21.8), 생활용품(118.1), 기계류(114.0),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111.8)의 수출경기가 올해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조사 -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 ↑ / 전자제품 ↓ - 수출기업들은 주된 애로요인으로 원재료 가격상승(17.4%)과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5.5%),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13.0%) 등을 지적 ◆ **유통업계 "사드보복 등 국·내외 악재 개선" 희망** • 유통업계, 주말집회 계속돼 예의주시 식음료·면세업계, 사드보복 개선 기대 / 백화점·마트업계, 소비심리 회복까지는 '아직' 식품업계, 국내외 악재 개선될까하는 기대감 / 면세·관광업계, 中 보복 완화 '실낱 같은 희망' <출처 : KOTRA> ◆ **3개월 만에 100원 가까이 떨어진 원/달러 환율** -트럼프 기대 '폭삭'… 미 금리인상 영향은 '거꾸로' 예측과 반대방향으로 진행돼 수출기업 피해 우려  환율 급변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난 3월 중순 이뤄진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른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튿날인 3월 16일, 시장평균환율은 1146.3원에서 1131.7원으로 하루만에 15원 가까이 폭락했다. 문제는 이처럼 환율이 예측과 반대로 움직일 때, 수출업체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이 환차손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수출대금을 고정시키기 위해 환헷지 상품을 이용하길 당부하고 있다. 요즘처럼 환변동이 급물살을 탈 때일수록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주간무역>

구 분	내 용
무 역	◆ **중국·미국 보호무역에 제3시장 눈 돌리는 정부** → 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 '현안보고서' 제출 "중국 내 조치, 사드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 // 정부, 400억원 자금지원 방안 마련…수출다변화도 추진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과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더욱 근본적으로 아세안·인도 등으로의 진출 확대 등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늘어가는 미·중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개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멕시코, 유라시아(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주간무역> ◆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로 중미 6개국 품목 '95%' 관세 철폐** 산업부,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가서명식…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자동차·철강·합성수지·화장품·의약품 가격 경쟁력 높아져…쌀·고추 양허 제외 2년여의 협상 끝에 한국과 **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중미 6개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 **원자재값 상승 랠리…철강·정유 '맑음', 타이어 '흐림'** 최근 원유·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유와 철강 업계는 미리 비축해 둔 재고분에 대한 평가 이익이 늘어나고 원재료값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영업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어업계는 고무 재고분량이 적고 당장 제품가격에 원료값을 반영하기 힘들어 원자재값 상승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구 분	내 용

화 학

◈국제유가 상승, 6개 산유국 감산연장 지지 선언…나프타 상승

OPEC 모니터링위원회 감산 6개월 연장 지지

러시아 "너무 이르다" 신중 입장, 미 정제가동률 증가

<출처 : EBN 화학뉴스>

(단위: U$/bbl)	2016년	2017년 2월	2017년						전주비
			3.23(목)	3.24(금)	3.27(월)	3.28(화)	3.29(수)	3.30(목)	
Brent*	45.13	56.00	50.56	50.80	50.75	51.33	52.42	52.96	2.40
WTI*	43.47	53.46	47.70	47.97	47.73	48.37	49.51	50.35	2.65
Dubai	41.41	54.39	49.17	48.97	48.84	49.23	50.14	50.71	1.54
Oman	42.14	54.95	49.73	49.54	49.45	49.79	50.67	51.32	1.59

▲ [사진=한국석유공사]

◈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 2월 수출 전년比 20.2% 급증..2012년 2월 이후 최대치 / 무역수지 61개월 연속 흑자..3월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지역별로는 대 베트남·아세안·중국·일본·CIS·EU 수출 증가가 지속됐으며 미국·중남미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출처 : KOTRA>

◈ 석유화학 좋은시절 끝?…미국發 공급과잉 시작

셰일 기반 ECC 2분기 가동, PE·PP 공급과잉 전망 // 사업다각화 목적 대규모 투자, 외부차입 증가 흐름

통상환경 변화, 수급여건의 저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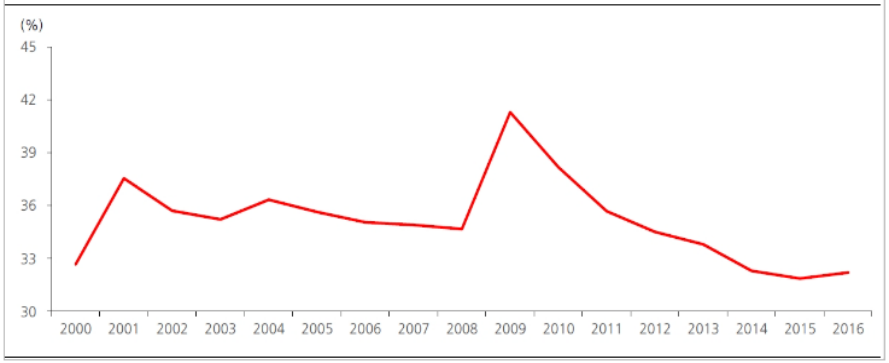
미국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경우 미국발 수출 확대로 수급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업계는 다양한 위험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증설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 및 원료다각화, 정밀화학(스페셜티) 품목 확보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나이스신평은 "석유화학업체들이 다양한 경쟁수단 확보를 위해 투자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부차입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실적 및 재무구조 수준은 2012~2014년 침체기 대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주간무역>

[그림1] 한국 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 추이



▲ [자료=한화투자증권]

◈ [사드 보복] 화학업계 영향은?

→ **1월 석유제품 대중국 수출량 오히려 늘어**

화학제품 반덤핑 조사 영향 미미, "현지 필요에 의한 수입

석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 석유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유럽에서 사와야 하는데 운송비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석유제품에 보복 조치를 내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EBN 화학뉴스>

구 분	내 용

스 틸

◆ **[6대 광물] 중국 수요감소로 유연탄價 하락…철광석 수요강세 전망**

- **中 1월 유연탄 수요 전월대비 11% 감소, 3개월래 최저**
- **칠레·인니 대형 구리광산 공급차질, 필리핀 니켈광산 폐쇄**

- 유연탄 가격이 중국 수요 감소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요 광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유연탄 가격은 전주 대비 0.9% 하락한 톤당 81.81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1월 수입량이 전월 대비 10.6% 감소하며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단위 : U$/톤 (우라늄:U$/lb)

광종	연평균		주간평균		
	'15	'16	2.4주	3.1주	전주비(%)
유 연 탄	57.56	66.03	82.53	81.81	0.9 ↓
우 라 늄	36.86	26.37	23.91	24.03	0.5 ↑
철광석 (중국수입가)	55.71	58.36	92.67	91.92	0.8 ↓
구리(동)	5,495	4,863	5,977	5,961	0.3 ↓
아 연	1,928	2,095	2,854	2,828	0.9 ↓
니 켈	11,807	9,609	10,818	10,914	0.9 ↑

▲ [자료=한국광물자원공사]

<비철금속>

(1) **Copper**:금일 3M $5,784레벨에서 시작한 Copper는 장 초반 청명절 연휴에서 돌아온 중국 실물 매수세에 힘 입어 상승세로 출발함. Copper는 이후 $5,850 레벨을 횡보하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추가 상승세를 기록함. 금일 Copper는 전일 대비 2.78% 상승한 3M $5,944레벨에 고점을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으며 재차 레인지 상단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Copper의 단기 지지선은 3M $5,650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Aluminum**:금일 3M $1,940레벨에서 시작한 Aluminum 역시 장 초반 여타 비철금속과 마찬가지로 강세 출발함. Aluminum은 $1,960레벨 부근에서 횡보세를 이어가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1,980레벨에 고점을 기록하는 강세를 보임. Aluminum은 단기 레인지의 상단인 $2,000레벨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여 안착/저항을 보일지 관심이 몰리고 있음.

Market News

□ 칠레 광산 파업이 국가 경기지수 8년래 최저치로 끌어 내려.. (Reuters)
칠레의 Escondida 광산이 지난 한달 간 진행한 파업으로 국가 광산 활동이 17% 감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칠레 전체의 경제활동 지수가 작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기록됨. 이는 지난 8년간 최저치 수준으로 기록될 전망임.

□ 페루 Southern Copper 노조 PS 요청(Reuters)
페루 소재의 Sothern Copper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더 많은 profit sharing을 사측에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함. 노조는 Sothern Copper가 소유한 Toqupala 광산과 Cuajone 광산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LME 비철금속 OFFCIAL Prices (단위: USD/Metric Tons)

	금일				금월평균		전월평균	
	CASH (현물)		3M (3개월)					
	BID	ASK	BID	ASK	CASH	3M	CASH	3M
Copper	5,808.00	5,808.50	5,835.00	5,840.00	5,783.33	5,812.33	5,821.52	5,840.89
Aluminum	1,960.00	1,962.00	1,971.50	1,972.00	1,949.50	1,960.00	1,901.57	1,911.00
Zinc	2,768.00	2,770.00	2,792.50	2,793.00	2,740.00	2,763.17	2,781.74	2,798.11
Lead	2,314.00	2,314.50	2,323.00	2,323.50	2,292.17	2,306.50	2,277.30	2,285.46
Nickel	10,160.00	10,170.00	10,230.00	10,235.00	10,000.00	10,076.67	10,230.43	10,282.61
Tin	20,175.00	20,195.00	20,175.00	20,180.00	20,151.67	20,128.33	19,831.50	19,791.74

자료: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선물팀

감사합니다

K2 LOGICS